

# 전남 장애인 사이클 박슬기, 한국신 새역사 쓰다

### 장애인체전서 개인추발 3km·1km 2종목 기록 경신...금 3개 획득

전남 장애인 사이클 박슬기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두 번의 한국 신기록이자 대회 신 기록을 새로 썼다.

박슬기(전남장애인사이클연맹)는 이번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25일 남자 개인도로독주 14km C2에서 22분55초58을 기록해 1위한 그는 29일 이어진 남자 트랙 개인추발 3km C2 예선경기에서는 4분7초834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한국 신기록과 대회 신 기록을 경신했다.

이 종목의 이전 한국-대회 신기록은 인천장애인 사이클연맹 소속 염슬찬이 세운 4분14초662로, 박 슬기는 약 7초를 앞당겼다.

1위로 결선에 오른 박슬기는 4분8초535의 기록 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지난 제43회 대회에서 이 종목 4분20초555로 우승했던 그는 당당히 2연패까 지 달성했다.

박슬기는 "국가대표를 목표로 열심히 훈련 중"이 라며 "기대 못 했는데 한국-대회 신기록을 세울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욕심부리지 않고 페이스 조 절하면서 파이팅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체력적인 부분을 비롯해 사이클을 탄다는 게 쉽지만 않다. 너무 힘들지만 매일 야외에서 1 시간씩 자전거를 탈 때면 바람을 가르는데 기분 전

환이 된다. 사이클이 내 행복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또 30일 마지막 경기로 치러진 남자 트랙 독주 1 km C1-2에서 1분20초607초를 기록한 그는 지난 43회 대회 때 자신이 세운 1분20초913이라는 한국 신기록을 뛰어넘으며 이번 대회 두 번째 한국-대회 신기록을 수립했다.

박슬기를 지도한 강병수 감독은 "체전 앞두고 훈련 중에 슬기가 잠시 슬럼프를 겪었다. 컨디션 관리 에 신경 썼던 것이 선수의 마음이 안정되는 데 도움 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슬기는 이전에 배드민턴 종목에서 활동하 다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클을 접 하게 됐다. 선수 특유의 열정과 강한 의지로 주문하 는 훈련량과 스케줄을 성실하게 소화한다"며 "힘이 좋은 선수인데도 스피드나 회전이 부족한 편이라 평소 훈련할 때 '오토바이를 이용한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왼쪽 뇌병변으로 손과 발이 불편 한 상태라 오토바이 훈련이 위험할 수 있는데도 선 수의 의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강 감독은 "국가대표를 목표로 열심히 훈련 중이 다. 국가대표 발탁 기회를 위해서는 국제 등급이 필 요해 지난 3월 자비를 들여 벨기에에 다녀왔다"며



경기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박슬기.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오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일본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선발전 에 발탁이 돼 꼭 태극마크를 달아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해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전남 장애인 사이클 박슬기(전남장애인사이클연맹)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두 번의 한국 신 기록이자 대회 신기록을 새로 썼다. 경기를 준비하는 박슬기.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

## 광주시청 장애인 양궁팀, 전국대회 '금빛 명종'

### 종합 우승...이화숙은 4관왕

광주시청 장애인 양궁팀이 제4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양궁 종목 정상에 올랐다. 이화숙은 이번 대회에서 4관왕의 대업을 이루며 팀의 종합 우승 주역이 됐다.

이화숙은 지난 27일 여자 리커브 개인전 랭킹 라운드1 OPEN(W2+ST) 283점을 썩 1위에 올 랐으며 랭킹라운드2 OPEN(W2+ST)에서 276점을 추가해 총점 559점으로 랭킹라운드 종 합 OPEN(W2+ST)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챙 겼다.

그는 28일 김옥육(광주시청)과 출전한 혼성 리 커브 2인조 OPEN(W2+ST) 122점, 김란숙(광 주시청)과 나선 여자 리커브 2인조 OPEN(W2+ ST)에서 101점을 썩며 금메달 2개를 추가했다. 30일 마지막 경기로 도전한 여자 리커브 2인조 OPEN(W2+ST)에서 부산의 권하연을 4점 차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이화숙은 이번 대회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1위에 자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총점 6725.2점(금7·은3·동5)을 기록한 광 주는 이번 대회 양궁 종목에서 종합 우승을 거뒀다. 윤태성도 5개의 메달(금2·은1·동2)을 따내며 활약했다.

그는 남자 컴파운드 개인전 랭킹라운드1 OPEN(W2+ST)에서 341점으로 2위, 랭킹라운



드 2 OPEN(W2+ST)에서 336점을 더해 총점 677점으로 랭킹라운드 종합 OPEN(W2+ST) 3 위를 기록했다.

정진영과 출전한 혼성 컴파운드 2인조 OPEN (W2+ST)에서 분투 끝에 3위에 자리한 그는 남 자 컴파운드 2인조 OPEN(W2+ST)과 남자 컴파 운드 개인전 OPEN(W2+ST)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내면서 광주의 우승에 힘을 보탤다.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은 "이번 대 회에 출전한 광주의 모든 선수가 열심히 준비했 고, 최선을 다해 입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기회 가 주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일단 선수들 컨디션 관리를 우선순위에 두 고, 오는 2025년 광주에서 개최될 세계장애인양 궁 선수권대회를 대비해 다시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 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광주시선수단, 한·중 청소년스포츠 교류 참가...양국 문화·역사 공유

### 배드민턴 등 3개 종목 70명 참가

광주시선수단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 충 칭시에서 열리는 '제17회 한·중 청소년스포츠 교류'에 참가해 중국 선수단과의 우정을 다진다.

배드민턴(전대사대부중, 광주체육중)과 농구(광 주수피아여중, 문화중), 탁구(빛고을클럽, 경신 중, 송정초, 태봉초) 등 3개 종목 선수단 70명과

임원 9명이 참가하는 이번 교류행사는 대한체육회 와 광주시체육회가 주관하고 중국 중화체육총국 이 주최하며 광주시가 후원한다.

양국 청소년들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를 통해 다 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친선을 도모 하기 위해 진행되는 본 행사는 2008년부터 양국 체육회장 간 교류이행 합의 체결을 거쳐 추진됐다. 지난 7월에는 중국선수단 80명이 광주를 방문

해 합동훈련과 공식경기를 치렀고, 광주김치타운 등을 방문하며 광주 문화를 경험했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미래의 주역인 양국 청소년들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스포츠를 통해 꿈 과 우정을 키우길 바란다. 광주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안전사고 없이 진 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출국 인사말을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시동

### '탁구 전설' 유승민 등 4명 도전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의 우선 조건 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 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체육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장 은 최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3번째 임기 도전 관련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당선돼 체육회 수 장에 오른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 회 장이 사실상 3선 도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 된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 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열릴 예정 이며, 12월 중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기흥 회장과 오 한남 대한배구협회장 등 3선 도전을 표명한 종목 단체 회장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 소위원회를 개 최해 1차 심사를 하고 11월 12일 전체 회의에서 이들의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육계 개혁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일전을 치르 는 중인 주무 부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회장의 선 거 출마를 막고자 압박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문체부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과 운영을 개선하라고 체육회에 권고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장이 자기가 임명한 공정위원회에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아 불 공정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문체부는 체육회에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이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관련 규정을 바꾸라는 권고는 지 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 개선 계획 제 출을 거듭 요구하고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



이기흥 회장

유승민

기된 김병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의 '접대 골 프' 의혹에 대해 정략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국민권 익위원회 신고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는 김 위원장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3선 연임 심사 이후 함께 골프를 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쏟아졌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이들과 골프를 치지는 않았 으나 당시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유승민 전 대 한탁구협회장과 강신숙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수협 회장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월 Bluse)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